

백운산 송전탑 설치 반대 및 지중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351
----------	------

발의연월일 : 2007. 7. .

발 의 자 : 박노신 의원 외 9인

1. 주 문

- 주문내용 별첨

2. 제안이유

- 송전탑·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신강진~광양 간 345kV 고압 송전선로와 같은 대규모 전력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명산인 백운산의 극심한 환경파괴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발과 함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송전탑건설 반대 투쟁의지가 강력함.
- 전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의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등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광양시의회는 아름다운 백운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앙관련 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건의문 통보처 : 청와대, 국회,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백운산 송전탑 설치반대 및 지중화촉구 건의서

광양만권은 70년대 여천석유화학단지를 시작으로 80년대 광양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90년대 컨테이너부두개장과 2000년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위하여 여수화력, 하동화력, SK발전소, 메이어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근래에는 국가전력의 안정화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광양만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전국 각지로 송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시는 사방팔방으로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엉켜있어 주민건강은 물론 밤나무 약제살포 등 농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광양에서 신강진간 송전선로를 가설하면서 남도의 명산이며 희귀식물의 보고인 백운산에 40기 이상의 송전탑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정서까지 파괴하고 있어 대 정부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의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백운산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보존함으로써 많은 경제적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폐가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번째, 어쩔 수 없이 송전선로 가설이 불가피하다면 지중화 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주변지역 주민보호를 위하여 보상이 수반된 지원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합니다.

넷째, 점차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규모 송·변전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야생식물 군락지 파괴,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등 주민생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포함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 반영 불가시 타당성 및 그 이유를 협의 기관은 물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가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전국에 송전탑이 실 타래처럼 엉켜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제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만이 최선의 선택임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금번 백운산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14만 광양시민을 대표하여 광양시의회는 345kV 신강진 ~ 광양간 송전선로건설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광양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7 년 7 월 10 일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